

사설

‘갈등’ 아닌 생산적 ‘진통’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안이라도 관점에 따라 상반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한 예로, 긴 가뭄 끝에 비는 당연히 생명을 수호해 주지만, 장마 때의 비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인사 청동 좌불 조성 문제도, 관점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뒤바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로 불거진 불교계의 의견 개진 방법을 두고, 불교계 내분 또는 해인사 대 실상사의 갈등 양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단세포적이기조차 하다. 결국 이 문제는 불교계의 내분이나 해인사와 실상사의 갈등으로 볼 일이 아니다. 수경 스님과 일부 해인사 스님들의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

물론 드러난 모습으로만 본다면 갈등 국면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란 것이 그렇듯이 사건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있는 게 아니다. 좀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불교계의 생산적 진통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 진통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불쌍사나운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지엽말단이 본질을 가리는 양상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차분하게, 불제자답게, 과연 어떤 행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 행위인지를 생각할 시점이다.

불가 고유의 전통에는, 지극히 이상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뜻을 묻는 제도도 있다. 어떤 일이든 재가의 남녀 신도인 우바새·우바이, 출가 대중인 비구·비구니 등 이른바 사부대중의 공의를 묻고, 포살(佈薩)이라는 이름으로 보름마다 스님들이 모여서 지난 반달간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공개 참회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불가의 자랑스런 전통대로 여법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다. 선가(禪家)의 말대로 은산철벽을 품으려면 태산 같은 의심머리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대중의 정신으로 좌불 조성을 둘러싼 문제를 여법하게 풀어가야 안 된다.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건강한 수행 풍토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달라이라마 방한 끝내 무산

“하얀 꽃 피면 하얀 감자 캐보나 마나 하얀 감자 자주 꽃 피면 자주 감자 캐보나 마나 자주 감자.” 꽃의 색깔과 모양만 보아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 들어 있는 감자의 색깔을 알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과 진리를 간명하게 읊은 노랫말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불교의 덕높은 스님이며 명명정부의 수반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세계 시민들이 그를 초청하고, 초청이 있는 한 흔쾌히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어 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워지기를 희망하는 나라에서, 그를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슬픔만큼 아픔으로 다가온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국민만이 달라이라마를 만날 수 없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로는 중국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남북의 분단 상황을 타개하고 통일을 이루려

는 정부의 외교정책이 달라이라마의 평화 메신저로서의 상징성을 부정하고 정치지도자만으로 바라보는 중국정부의 반응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정부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이웃나라인 한국의 이익과 정서를 왜곡시키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셋째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 주체에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작용했다고 본다.

방한추진위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는 방한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위에 지적한 세 가지 문제는 불교계와 우리 정부의 짐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다. 언젠가는 달라이라마가 한국 땅을 밟을 것이니까. 위의 원인을 검토하고 관련 당사자가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 유일 분단국의 슬픔같은 아픔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난문화재 은닉도 처벌”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공소시효 ‘발견시점’ 연장 적용도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존대책으로 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불법취득 문화재의 유통방지를 위해 도난문화재의 은닉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문화재청은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22회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도난 시점’부터 적용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공소시효(3년에서 7년) 조항을 ‘발견 시점’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문화재를 절취하여 은닉하여 두었다가 공소시효 기일이 지난 후 문화재를 판매

하는 경우 범인을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조차 어려운 법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진 중인 개정안은 절취 행위와 은닉 행위를 분리해 공소시효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즉 ‘은닉 행위’는 그 이전의 손상·절취·취득 행위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행위로 처벌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그 동안 형법상 이른바 불가법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별개의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발견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는 것.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은닉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발견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난을 사유로 문화재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 동산문화재) 사범의 처벌규정도 7월 1일부터 ‘징역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nia.com



△김정숙 추장소에서 열린 환송식. 남북의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남북 다각교류 활성화 하라”

6·15 한 돌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성황

불교 등 7개 종교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연대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 1돌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 참가자들은 15일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호텔 앞에서 토론회를 열고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등을 다짐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또 일본당국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동포 대표단 700여명의 토론회 참가자들은 공동보도문

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또 △6.15 공동선언은 세 세기 조국통일의 공동 강령이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

연합을 적극 실현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며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 △6.15 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올해를 통일 의문을 여는 해로 빛내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과 북 해외동포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보수우익들의 허황한 망상을 부셔버리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남측에서 이돈명 민화협 상임의장과 강만길 상지대 총장 등 25명, 북측에선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과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223명, 해외 동포단체 대표 20여명이 참가했다.

불교계에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회장 법타스님,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장적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도각스님,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스님, 진각종 복지재단 사회복지국장 지원정사 등 26명이 참가했다. 조선불교도연맹에서는 박태화 위원장과 황병준 부위원장, 심삼진 서기장 등 6명이 대표로 나왔다.

금강산=정성운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2003년 재추진

준비위 올해 초청 무산

달라이라마 방한이 2003년 다시 추진된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7월 16일 예정됐던 달라이라마 방한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하고 2003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정운기 국장은 “다람살라와 정부가 협의하여 달라이라마 방한일정을 잡았음에도 비자발급이 3번이나 불허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국정부의 몫지 않은 행위이다”며 “김대중 정권에서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13일 전화통지를 통해 “올해 겨울(11~2월) 방한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달라이라마 방한시기에 이한동 총리의 방중 일정이 잡혀있고, 중국정부에 방한문제를 외교적으로 통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티베트 망명정부에 전달하고 2003년 재추진키로 했다.

한편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는 40명규모의 대표단을 구성, 7월 1일부터 23일까지 티베트 라다크와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하여 장기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법계고시 27~28일 시행

태고종 총무원장은 종단의 위계질서와 승가상 확립 차원에서 제8차 법계고시를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종무처 설립전에서 치르기로 했다.

법계고시는 5급 대선부터 4급 중덕, 3급 대덕, 2급 종덕, 1급 종사에 이르기까지 5개 법계로 나누어 치른다. 시험 방법은 대선과 중덕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대덕과 종덕은 논문과 면접으로, 종사는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추대하게 된다.

각 법계별 응시자격은, 대선은 연령 25세 이상 법랍 5세 이상으로 종단 입적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종덕은 연령 30세 이상 법랍 10세 이상으로 대선 품수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 대덕은 연령 35세 이상 법랍 15세 이상으로 종덕 품수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종덕은 연령 40세 이상 법랍 20세 이상으로 대덕품수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그리고 종사는 연령 50세 이상 법랍 30세 이상으로 종덕품수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서장’ 한글교재 펴낸다

조계종 사용후 사집확대

조계종 교육원은 20일 총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3차 김인정 교재 편찬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집교재 중 <서장>에 한해 한글 교재를 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인정 교재 편찬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한문 교육만으로는 수업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서장> 한글 교재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뒤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다른 사집교재에도 적용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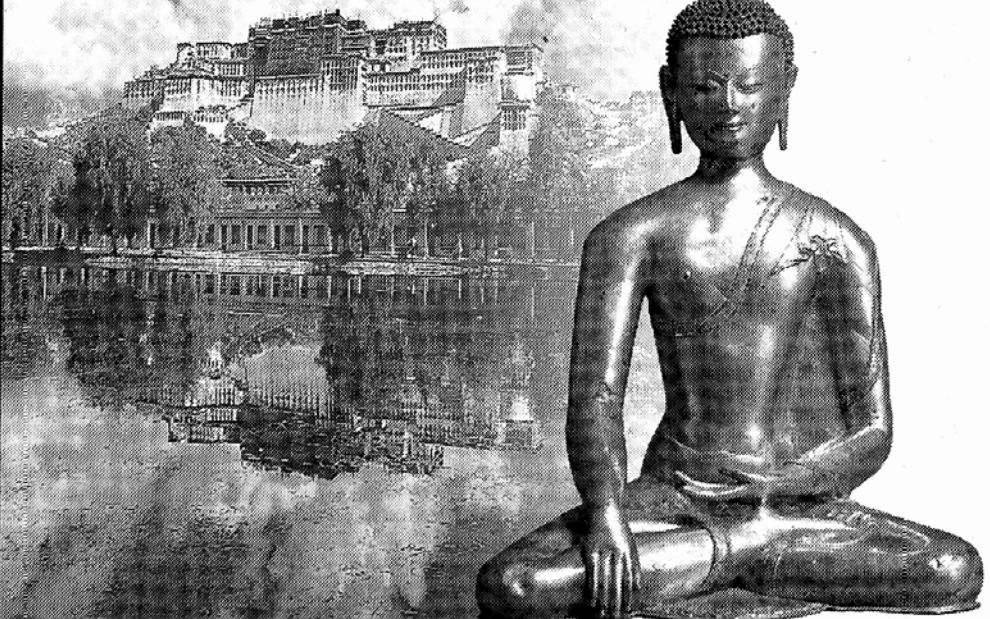
현대만평 박구원

재검토 여론

잘 수렴해서...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베트 특별전 개최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티베트 불교유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순박한 삶과 종교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티베트미술의 아름다움을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막일시 : 2001년 6월 25일(음 5. 5) 월요일 오전 11시  
 전시기간 : 2001년 6월 25일~9월 17일(3개월간)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전화 : 055) 382-1001, 384-0010

특별행사로 티베트스님들의 만다라 재작성이 7월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시기간 동안 전화로 예약하는 사찰단체에 한하여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